


인도 : 이영제 목사

목	도	.....	다	같	이
기	원	.....	인	도	자
찬	송	..... 57장	다	같	이
교	독	..... 21번	다	같	이
신	앙	.....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 162장	다	같	이
기	도	.....	인	도	자
성	경	..... 요 14:5-6	다	같	이
특	송	.....			
설	교	..... <b>예수님은 누구신가?</b>	이	영	제
		..... (1. 나의 길이신 예수님)			
찬	송	..... 162장	다	같	이
현	금	.....	다	같	이
봉	헌	..... 기도	인	도	자
광	고	.....	인	도	자
찬	송	..... 442장	다	같	이
축	도	.....	인	도	자

24시간 릴레이 기도자 : 매일 오후 1-2시 (이영제)



기도제목 : 세계선교를 위해서 / 필리핀 정형구 선교사님, 베트남 000님, 중국 리00전도사, 아프리카 김형주 선교사님 등 / 24시간 릴레이 기도 팀이 하루속히 만들어지도록 / 피아노 반주자가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주안교회 5대 실천강령**

- ◇ 24시간 쉬지않는 릴레이 기도로 성도 자신이 성령받고 교우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한다.
- ◇ 본 교우는 모두 주 예수그리스도를 바라고 예배하여,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
- ◇ 모든 교회재정(십일조, 감사, 선교헌금 등)의 지출은 선교비를 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로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여 오는 세대에게 복음과 선교정신을 물려준다.
- ◇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선교 체제로 조직 운영하며 자발적인 봉사과 헌신으로 운영한다.



**주일오후 2시 예배 / 히브리서 주석강해 설교**

이영제목사가 직접 연구한 주석자료를 기초로 강해설교 합니다.

**2:5-18 구원의 창시자**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원문 처음에 οὐ(우) “아니다” 에 접속사 γάρ(가르) “왜냐하면” 으로 연결시키고 있어 문장 전체를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히 1:14과 연결하고 있다. “장차 오는 세상” 은 베드로가 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벧후3:13)과 같은 의미로, 히1:2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와 같은 의미로 보기도 하고 칼빈은 ‘장차 오는 세상은 그리스도 왕국 초기에 시작된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정확하게 언제를 말하는지가 다를 지라도 분명한 것은 천사가 다스리게 하기 위한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세상이며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리는 세상을 말한다.

6절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천사들에게가 아닌 인자에 의해서 다스릴 것을 ‘구약 성경에 증거함으로써’ 를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문어체적인 방식으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인용하고 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b>는 시8:4-6을 인용한 것으로 “사람이 무엇이관대” 는 인간의 허무성과 존엄성을 동시에 생각하게 하는데 인간은 사실상 하나님의 보호아래 있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생각하시며” μνησκει (민네스케)는 ‘도움을 주시기 위해 생각하신다’ “ 권고하시나이까” 의 ἐπισκέπτῃ(에피스케프테)는 “ 조사하다, 방문하다” 의 뜻으로 사람을 돕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을 말한다.

7절 **저를 잠간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씩우시며** 주께서는 잠간동안 천사보다 못한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다. 또 인자로 세상에 오신 기간동안은 천사보다 못한 성육신 하셔서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빌2:7). “ 존귀” τιμη(티메)는 “ 치러야 할 값, 지불된 돈” 을 의미하는 용어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음을 말한다.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본문은 히1:13에서 인용한 시110:1과 연결된다. 잠간동안 천사보다 못한 신분이었지만 원래 만물로 복종케 하신 그리스도의 신분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는 7절의 반복으로 7절에서 “ 저를 ” 이라고 기록한 것을 “ 예수를 보니 ” 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 잠깐 동안 ” βραχύ τι(브라퀴 티)이 7절의 “ 천사 ” ἀγγέλους(앙겔로스) 앞에 있는 것 보다 더 앞의 위치에 놓여 7절보다 더 강하게 반복하고 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 맛보려 ” γεύσῃται(규오마이)는 “ 먹다, 경험하다 ” 의 뜻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함께 낮아지시고 조롱받은 모든 것을 뜻한다(마16:28, 요8:52).

10절 만물이 인하고 δι’ ὧν τὰ πάντα(디 혼 타 판타)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δι’ οὗ τὰ πάντα(디 후 타 판타)는 ‘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왔고 그 만물을 통해서 온 자에게 ’ 로 창조와 구속의 사업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말한다. 이렇게 오신 것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πολλοὺς υἱοὺς(플로스 휘오스) “ 많은 아들 ” ,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이르게 되도록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τελειῶσαι(텔레이오사이) “ 성취하다, 온전케 하다 ” 는 과거형으로 이미 성취된 것이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ὁ τε γὰρ ἁγιάζων(호 테 랄 하기아존)은 “ 거룩하게 하시는 자 ” 는 모세 오경에서는 하나님을 말한다(출31:13, 레20:8, 레22:9). 그러나 본 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히10:14, 히13:12).

다 하나에서 난지라 ἐξ(에크) “ ...로부터 ” ἐνός(헤노스) “ 하나 ” πάντες(판테스) “ 모든 것, 모두 ” 로 한 뿌리의, 한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럴기 때문에 “ 형제 ” ἀδελφοὺς(아델포스) “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 ” 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시다 ’ 이다.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시22:22절을 인용하여 주님의 고난과 관계된 메시아적 시이다(마27:46, 막15:34, 눅23:35, 요19:24). “ 교회 ” 를 말하는 ἐκκλησία(엑클레시아)는 “ 불러냄, 집회 ” 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모임을 뜻하게 되었다(행7:38, 행19:32, 39, 41).



**제목 :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 / 본문 : 행 8:14-24**

오늘은 성령강림절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며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구약적 의미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의 첫 수확을 누리며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에 잡혀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시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므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출발과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었으며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열매가 있어야 함을 보여 주는 의미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사도들 다음으로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에 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취급을 하던 사마리아 지역에 내렸습니다. - 할렐루야 -

사도들(행2:1-4) 다음으로 처음 나타난 성령은 바로 사마리아에서였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는 반목이 깊어 왕래를 하지 않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한번도 이 사마리아를 차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요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성경 전체에 5번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4번 나오며, 오늘 본문 16절과 요14:26, 요15:26, 그리고 요16:7에 나옵니다. 나머지 한 번은 요일2:1절에 쓰였습니다. 사랑하는제자 요한만이 이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말은 본래 법정의 법률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즉 법정에 선 사람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파라크레토스”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변호사”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라크레토스”를 영어 성경에서는 “돕는 자”라는 말인 “helper”로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돕는 자로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첫째**,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칼빈은 늘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순서는 말씀 전에 있었습니다.

**둘째**, 사도들(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안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임을 너무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성령 없는 성도는 껍데기 교인에 불과합니다.

## 세계에서 제일 큰 것 두개



이영제 목사  
주앙교회 담임  
원후타산교회의 대표

러시아 크레몰린 궁안에 들어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것 두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번도 쏘아 본적이 없는 대포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이 대포는 실제로 사용된 대포가 아니라  
구 소련시절 자신들이 세계에서 제일 큰 대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대포알은 너무 무거운 슈팅어러라 날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종이라고 만든 것입니다.  
이 종 또한 한번도 올려보지 못했습니다.  
종을 만들 때 너무 크게 만들다 그만 한쪽이 주저 않아 깨지고 말았습니다.

허세는 제일 큰 것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쓸 수도, 울릴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이영제>

주앙교회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직은 할 수 있는 것 보다 못하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습니다.  
해맑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향해하는 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배에 꿈을 싣고 떠나고자 합니다.

주앙교회에 오셔서 지친 영혼을 달래고 새로운 세계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 예배시간 안내

주일 오전 11:00 /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 찬양, 성경강해

새벽 5:30 / 새벽예배

수요 오후 8:00 / 삼일예배(주제별 성경공부)

금요 오후 9:30 / 심야예배(찬양과 기도집회)



대한예수교장로회

# 주 앙 교 회

JOOANG PRESBYTERIAN CHURCH

표어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한 교회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선교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봉사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  
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1)

---

담임목사 이 영 제  
Pastor Lee Young Jae

435-05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3-3(제일프라자 5층 본당, 사무실 4층)

교 회 : (031)399-7706 선교회(KCM) : (031)399-7705

목사관 : (031)398-7702 핸드폰 018-213-7702

Homepage : <http://kcm.co.kr> Email : [webmaster@kcm.co.kr](mailto:webmaster@kcm.co.kr)